좋은 텍스트를 만드는 길

고영근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요즈음 한국의 언어 문학과 기호학계에는 텍스트란 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텍스트란 도대체 무엇일까. ‘텍스트(Text)’란 원래 라틴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직물/조직’이라는 뜻이었다. 보통 우리가 ‘텍스트’라고 하면 본문을 뜻하는 경우가 많고, 번역서의 경우, 원전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언어 문학과 기호학에서 사용되는 텍스트의 뜻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텍스트는 대체로 세 가지 뜻으로 그 용법을 한정할 수 있다. 첫째는 “너 어제 어디 갔다 왔니?”라는 물음 문장은 “내장산에 다녀 왔어.”라는 응답 문장과 짝을 이루어야 완결된 생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접속부사에 기대어 이어진 문장의 무리 “날씨가 몹시 추웠다. 그런데도 철수는 내의를 입지 않았다”도 같은 성격의 텍스트 개념이다. 이런 뜻의 텍스트는 텍스트를 단순히 문장의 상위 단위로 보는 견해인데 미시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언어 현상을 설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사람의 행위 자체를 텍스트로 보는 방향으로 의견이 통일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인간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생산되는 모든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이나 산물이 모두 텍스트가 되어 그 범위는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은 물론, 자연과학에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다. '갑오경장, 새마을 운동, 미술 전람회'는 물론, 그림, 악보, 수학 기호 등도 텍스트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셋째로는 언어로 표현되어 있거나 언어로 옮길 수 있는 의도적인 표현을 텍스트로 보는 관점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텍스트는 '도둑이야'와 같은 한 마디의 감탄적인 발화는 물론, 문장, 단락, 문단, 절, 장을 거쳐 한편의 작품이나 한 권의 저서도 텍스트로 볼 수 있다. 거리의 벽에 붙어 있는 각종 표어나 그림을 동반한 포스터, 시위대의 플래카드도 물론 텍스트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 각종 교통 신호나 교통 표지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로 돌아간다. 빨간불과 파란불은 전에는 '서시오'와 '가시오'와 같이 문자로 표시된 적도 있었고, 지금도 지역에 따라서는 호르라기와 손신호로 교통 신호를 대신하는 일이 있으며, 전에는 그런 일이 매우 많았다. 이런 기호는 언어 표현을 직접 전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화 기호로 보기도 한다. 서울시청 앞에서 광화문 네거리로 차를 몰고 가다가 보면 '동대문'이라 적어 놓고 그 밑에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표시한 표지판을 볼 수 있다. '동대문'은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텍스트로 볼 수 있지만 화살표도 텍스트로 간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경우의 화살표는 오른쪽으로 가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으니 텍스트로 보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언어 표현과 화살표가 합쳐서 텍스트를 이루

고 있다. 이곳에서는 주로 언어 표현이 주종을 이루는 세 번째 견해에 기대어 좋은 텍스트를 만드는 길을 더듬어 볼까 한다.

가정과 문중에는 가훈(家訓)과 종훈(宗訓)이 있고, 학교에는 교훈(校訓)이 있으며, 학급에는 급훈(級訓)이 있다. 그리고 나라에는 교육의 지표를 선언하는 교육헌장이 있다. 이들은 모두 그 자체가 완결된 생각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텍스트가 될 수 있다. 이를테면 교훈의 경우, “근면”과 “성실”을 그냥 늘어 놓아서의 자족적인 텍스트가 될 수 없다. 교훈이라는 큰 제목 아래 포괄되어 있어야만 텍스트다움(텍스트성)이 보장된다. “훈(訓)”으로 끝나는 텍스트는 선언적 기능이 지배적이어야 한다. 교실에 걸 때에도 교훈은 모든 학생들의 눈길이 쉽게 미치는 앞쪽 중앙 높은 곳에 태극기를 중심으로 급훈과 함께 배치한다. 이런 경우 교실 뒷벽이나 옆벽에 붙이면 텍스트다움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는 텍스트다움이 상황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示唆)한다. 선언적 기능은 텍스트 생산자가 텍스트 수용자에게 새로운 현실을 창조함을 이해시키는 데 중점이 놓이기 때문에 명령적 표현보다 사실을 진술하는 평서형을 사용하거나, 앞서 든 교훈 ‘근면, 성실’처럼 명사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고유어의 표현을 개발하게 되면 새로운 형태의 텍스트가 산출될 가능성이 많다. 개화기의 주시경 선생은 모든 증서를 ‘마친 보람, 배운 보람, 다 갠 보람, 부지런 보람, 솟재 보람’이란 고유어로 개발하여 그 나름의 서식을 작성한 바 있다.

요즘 버스나 택시 등의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하면 ‘다시 뛰자’라는 글귀가 적힌 포스터를 흔히 접한다. 이 글귀의 옆에는 한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태극기가 그려져 있다. 국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텍스트 생산자의 태

도가 엿보인다. 국제통화기금 시대를 맞아 옛날처럼 근검 절약하여 우리의 어려운 나라 살림을 다시 일구자는 호소적 기능을 읽을 수 있다. 호소적 기능은 텍스트 생산자가 텍스트 수용자에게 행동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기능에 상응하여 청유형과 같은 명령 표현이 많이 쓰인다. 플래카드, 신문의 사설, 기사의 제목 등에서 흔히 호소적 기능을 표시할 때 명령 표현을 사용하는 일이 많다. 이런 경우는 청유형보다는 명령형이 많이 쓰인다. 이를테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정부는 수해대책을 시급히 세우라'와 같은 표현이 그것이다. 이 경우 해라체의 직접 명령형 '세워라'로 제목을 다는 일이 적지 않은데 이는 옳지 않다. 텍스트 수신자가 복수이고 그것이 전 계층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문제지의 지시표현도 '쓰라, 적으라, 고르라'로 쓰는 것이 옳음은 물론이다. 상황에 따라 텍스트의 문법적 수단이 달라진다.

아파트 단지 안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면 어린이를 보호하는 팻말이 세워져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종류의 팻말은 직사각형과 삼각형으로 조합되어 있다. 팻말의 꼭대기에 배치한 직사각형에는 이 텍스트를 생산한 광고주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에 관련된 정보가 적혀 있다. 삼각형은 붉은 빛깔로 띠를 둘렀다. 그 안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천천히'란 글귀가 배치되어 있다. 전자는 이 지역이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구역임을 알리는 제보적 기능을 표시하고 후자는 그런 구역인 만큼 자동차를 천천히 몰아야 한다는 텍스트 생산자의 호소적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천천히'는 다른 글귀보다 크기가 조금 큰데 이 텍스트의 지배적 기능이 호소적임을 특별히 드러내기 위한 배려이다. '천천히' 아래에 'slow'라는 영어 단어를 병기한 것은 우리나라

에 사는 외국인에게 편의를 주기 위한 조치이다. 그런 경우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지역이 아니면 국문과 영문의 크기를 달리해야 한다. 그런데 개중에는 국문과 영문을 같은 크기로 만들어 세우는 일이 없지 않다. 기능이 같은 만큼 글자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은 좋으나 빛깔을 달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텍스트는 크기는 직사각형과 삼각형의 두 텍스트로 분할할 수 있고 삼각형은 다시 제보적 기능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호소적 기능의 ‘천천히’의 두 하위 텍스트로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기능이 복합적일 때에는 지배적 기능이 무엇이나를 잘 분간하여 텍스트를 생산하여야 한다.

거리를 거닐거나 백화점에 가 보면 우리나라가 영미의 연방국가가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다. 영어 단어와 문장이 예사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자는 중국요리집 정도에서만 접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거의 접할 수 없다. 옛날에는 한자를 혼용한다고 하여 한자 폐지 운동을 일으키던 단체도 영어 어휘나 로마 글자가 활개를 치는 요즈음의 언어 생활에 대하여는 큰 반대가 없다. 영어를 공용어로 삼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판국이니 문제 삼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요새 방송 같은 데서는 ‘좋은 오후/주말 되세요’와 같은 표현을 예사로 들을 수 있다. 필자가 사는 마을 가까운 곳에 대형 할인매장이 있는데 입구에 ‘Every day low price’란 플래카드를 걸어 놓고 있으며, ‘Have a nice day’라는 영어 문장을 큰 글씨로 적고 그 위에 작은 글씨로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한국어 문장을 얹어 놓은 플래카드도 볼 수 있다. 전자에 대하여는 이에 대응되는 한국어 표현이 없고 후자에 대하여는 밑에 작은 글씨로 한국어 표현을 배치하였다. 영어 글귀를

큰 글씨로 적었다는 것은 영어가 우리 사회의 주체적인 공용어이고 한국어가 종속적인 언어라는 것을 함의한다. 이런 경우 굳이 영어 글귀를 써야 하겠다면 한국어 글귀를 큰 글씨로 적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박는 것이 한국적인 상황에 맞는 텍스트 배치이다. 그리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는 영어를 직역한 표현이다. 한국어다운 표현은 '하루를 즐겁게 보내십시오'라 적는 것이 옳다. 앞에서 든 '좋은 오후……'나 '좋은 주말……'도 '오후를 즐겁게……', '주말을 즐겁게……'로 고쳐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한글이 공용 문자이고 나머지 문자는 모두 보조 문자이다. 각급 학교 교과서에서 한자를 괄호 안에 넣는 것도 공용 문자인 한글의 위상을 드러낸다는 의도에서 취해진 조치이다.

지하철 구내의 벽에는 다음과 같은 텍스트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전을 소지하신 분은 발매기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정액권, 노인권, 어린이권’은 제외)

동전은 매표창구에서 교환하여 드립니다

시각성을 돋보이게 한다는 뜻에서 조사는 모두 글자의 크기를 낮추고 '동전, 이용, 교환'은 적색으로, '발매기, 매표창구'는 청색으로, '소지하신'은 흑색으로 빛깔을 달리하였다. 앞 글귀는 끝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으므로 호소적 기능이 파악되고 뒤의 글귀는 제보적 기능을 표시한다.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텍스트에는 그 기능이 복합적인 것이 많다. 이런 텍스트는 호소적 기능이 일차적이고 제보적 기능이 부차적이므로 뒤의 텍스트는 마땅히 글자의 크기

를 줄여야 한다. 조사를 작게 적은 것은 그것이 허사라는 점에서 동의할 수 있으나, 나머지 실사를 세 가지 빛깔로 구별한 것은 오히려 고객들의 주의력을 떨어뜨릴 염려가 있다. '동전, 발매기, 매표창구' 정도만 적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른 텍스트 생산의 길이 아닌가 한다. 지하철 구내와 같은 실내용 텍스트는 형광등의 조명을 고려하여 글자의 색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한 권의 책은 내용도 문제이지만 표지를 꾸미고 목차를 배치하는 문제 등에도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어떤 책은 책등에 적힌 글자가 너무 작아서 높은 서가에 꽂혀 있을 때 책의 제목을 판독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심한 경우는 책등에 지은이의 이름을 넣지 않는 일도 볼 수 있다. 이는 물론 실수이겠지만 이런 텍스트는 거짓 텍스트 내지 잘못된 텍스트라고 할 수밖에 없다. 더러 "설 익은 텍스트"라 부르기도 한다. 한편의 글을 쓸 때 표현이 거칠거나 알맞은 어휘를 배치하지 않았을 때 받는 느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우리의 출판계에는 책을 너무 쉽게 내는 풍조가 만연(蔓延)해 있다. 한 권의 책이 텍스트다움을 잃지 않으려면 외양도 내용에 뒤지지 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리고 책의 제목이 어느 정도 내용과 횡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따져 보아야 한다. 사실 책의 제목은 주제를 표시하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최대한 압축한 표현이 선택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권의 책이 출판되면 유통기구를 통하여 독자들에게 전달되고 전문가에 의하여 평가를 받기도 하고 남의 책에 인용되기도 한다. 일종의 간(間)텍스트성의 절차를 밟는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책만이 텍스트다움을 잃지 않는 텍스트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 광고 텍스트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아침마다 배달되는 신문

을 보면 하단에는 광고로 들어차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면이 광고로 메워지는 일도 적지 않다. 신문지 사이에는 지역사회와 광고물이 가득 들어 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켜면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에는 광고가 곁들인다. 광고란 상품의 유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선전 방식이다. 광고는 광고주의 상품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알려 상품이 잘 팔리도록 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으므로 제보적 기능과 호소적 기능이 복합적인 경우가 많다. 고객들은 광고를 통하여 상품의 특성을 파악하고 거기 적힌 정보를 통하여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광고주들은 그림과 문자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양자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텍스트 작성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림이 문자를 압도해서도 안 되며 문자가 그림을 눌러서도 안 된다. 특히 문자를 이용할 때에는 호소적 표현보다는 제보적 기능이 부각되도록 하는 편이 고객의 마음을 끌 수 있다.

좋은 텍스트를 만드는 데는 우선 응집성이라고 부르는 주제의 일관성이나 선명성이 부각되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이를 뒷받침하는 응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응결성이란 문자/음성, 형태, 통사, 의미/기능에 걸쳐 텍스트를 텍스트답게 만들어 주는 언어적인 장치이다. 아무리 응집성이 뛰어나도 응결성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텍스트다움을 잃게 된다. 텍스트를 연구하는 학문을 텍스트 언어학 또는 텍스트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학문은 서양의 고대 수사학과 현대의 문체론 및 민담 분석을 토대로 성립되었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양의 고전시학과 훈고학에도 텍스트 이론과 관련되는 많은 지식 체계가 스며 있다. 동양적인 지식 체계를 서양적인 지식 체계와 어떻게 접합시키는가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수 있다. 텍스트 이론은 좋은

텍스트를 생산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의사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